

##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옛날 옛날에 엄마 염소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가 살았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는 숲속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없는 사이에 나쁜 늑대가 올지 모르니까 집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네, 엄마. 문 꼭 잠그고 집에서만 놀게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이 걱정되어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는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갔어요.



아기 염소들은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이란 문은 모두 꼭꼭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는 재미나게 놀았어요.

한참을 놀고 있는데 누가 콩콩콩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아기 염소들이 합창하듯 한꺼번에 물었어요.

“문 열어다오. 엄마다.”

아기 염소들은 반가워서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애들아, 잠깐!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

제일 큰 형이 동생들을 말렸어요.

“애들아, 어서 문을 열어다오. 엄마야.”

그런데 정말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너 늑대지? 우릴 잡아먹으려고 왔지?”

아기 염소들이 집 안에서 소리쳤어요.

“쳇, 꼬마 녀석들이 알아차렸군,”

늑대는 제집으로 돌아와 분필을 와작와작 씹어 먹었어요.

분필을 먹으면 목소리가 예뻐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늑대는 다시 아기 염소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고운 목소리로 아기 염소들을 불렀어요.  
“애들아, 문 열어라. 엄마다.”  
“와, 엄마다!” 아기 염소들이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잠깐! 어딘가 이상해. 좀 살펴보자.”  
큰형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러자 시커먼 발이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발은 그렇게 시커멓지 않아!”  
“쳇, 고 녀석들.”  
또다시 들키고 만 늑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 다리에다 하얀  
밀가루를 발랐어요.  
그러고는 다시 아기 염소네 집 문을 퐁퐁 두드렸죠.  
“문 열어라. 엄마다.”  
일곱 마리 아기 염소들은 문틈으로 내다보았어요.  
새하얀 발이 보였어요.  
목소리도 상냥하고 예뻐요.  
아기 염소들은 반갑게 문을 열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 서 있는 건 시커멓고 무서운 늑대였어요.

“으아악, 늑대다!”

아기 염소들은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숨을 곳을 찾았어요.

첫째는 책상 밑에,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난로 속에,

넷째는 부엌 찬장 속에, 다섯째는 빨래 바구니 속에

여섯째는 장롱 안에, 일곱째는 벽시계 안에

모두모두 꼭꼭 숨었어요.

하지만 늑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기 염소들을 찾아내어  
꿀떡꿀떡 삼켜 버렸어요.

얼마 뒤에 집에 돌아온 엄마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집 안의 물건들이 온통 뒤죽박죽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귀여운 아가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염소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 염소는 큰 소리로 아기 염소들의 이름을 불러 보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일곱째를 불렀어요.

그러자 벽시계 안에서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벽시계 문을 열자 막내가 엄마 품에 뛰어 들었어요.  
“늑대가 와서 형이랑 누나들을 통째로 삼켜 버렸어.”  
막내 염소는 엉엉 울며 말했어요.  
“통째로 먹었다면,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몰라.”  
엄마 염소는 당장 나쁜 늑대를 찾아 나섰어요.  
늑대는 커다란 나무 밑에 드러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배가 산처럼 불룩했어요.  
그런데 늑대의 배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염소는 집으로 달려가 가위를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늑대의 배를 조심조심 가르자,  
“매에~ 매에~.”  
아기 염소들이 배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자, 어서 가서 돌멩이를 주워 오렴.”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돌멩이를 주워 왔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의 배 속에 돌멩이를 가득 채우고는  
원래대로 감쪽같이 꿰매 놓았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늑대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다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이구, 배는 또 왜 이렇게 무거워?”

어기적거리며 간신히 연못까지 온 늑대가 물을 마시려고 엎드렸어요.

그러다가 “어 어 어 어!” 하며,

퐁당!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늑대는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와, 우리가 나쁜 늑대를 해치웠다!”

일곱 마리 아기 염소들은 엄마 염소를 둘러싸며 만세를 불렀답니다.

